장성군 농업 관련 예산 24억 삭감 논란

농민단체, 군의원 주민소환 추진

"농민·노인계층 보호 예산 삭감은 감정적 처리"

해당 의원 "사용처 불분명…특정단체 집중 곤란"

농업 관련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장성지역 농민단체와 군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장성 지역 농민단체들은 최근 군의회가 농업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군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44억662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이 가운데 ▲농업인 경영마인드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여비지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29개 항목, 24억6천15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또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수 업무추진비 1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대해 한국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대부분 농업지원 관련 예산이 삭감된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인데도 무리하게 삭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4일 회의를 열고 주민소환 대상자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민이나 노인 등 보호되어야 할 계층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다분히 감정이 개입된 보복 삭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소환제를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군의원들은 "농업 관련 예산의 경우 용처가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것도 있어 삭감했으며 군수 업무추진비 역시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 삭감했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영광에 '고추 가로등' 등장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고추 가로등'이 등장했다. 고추 가로등은 전국 3대 고추시장인 영광 태양초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빨간 고추 모형이 달린 가로등 21개와 보안등 23개가 설치됐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이앙기·탈곡기 빌려 드립니다"

나주시, 임대사업

나주시가 내년부터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다.

임대대상 농기계는 이앙기와 수확기, 콩 탈곡기, 비닐피복기, 목재 파쇄기 등 수도작과 밭작물 경작을 위한 19종 56대다.

시는 5억 원을 들여 이들 농기계를 구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동수동 농기계 수리센터 내 보관창고도 증축할 계획이다.

시가 임대에 나선 농기계는 대부분 고가인데다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개인이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가 부담이 큰 품목이다.

농가당 한 기종씩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대여료는 실비만을 받기로 했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매년 보유 농기계도 늘릴 계획이다. 임대신청 및 문의 (061-335-7713)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구례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

주민 500명 설문 … 84%가 "친절해졌다"

구례군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례군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친절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4.3%로 지난해 61.8%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의 청렴도 및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는 89.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5.9%)' '만족하지 못한다(4.9%)' 순으로 집계됐다.

또 업무추진 신속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가 82.3%로 대부분 민원인들이 행정처리 결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처리기간이 길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돼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강진 군민장학재단 장학기금

3년 연속 20억 돌파

강진 군민장학재단(이사장 황주홍)의 장학기금 모금액이 3년 연속 20억원을 넘어섰다.

올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기탁된 강진 군민재단 장학기금은 2천147건, 2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진 군민장학재단은 지난 3년간 63억원의 기탁금과 인재육성 기금 및 군비에서 출연된 42억원 등 총 105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이중 올해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20억원이 집행돼 현재 85억원의 기금이 남아 있다

강진군은 장학기금 조성 마지막 해인 내년도 목표액을 15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말에는 장학기금 100억원이 조성돼 지역인재육성과 지역학교 살리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황주홍 이사장은 "강진교육 발전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광산구 산림행정 평가 '최우수'

1,300만원 포상금도 받아

광산구가 산림청 주관 '2007 지방자치단체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1천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광산구는 수요자 중심의 산림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을 위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림사업 외연을 넓힌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 최초로 5ha규모의 백우산 산림욕장을 조성했으며 1억2천만원을 들여 양산지구 임도를 개설, 마을간 통로를 확보하고 산불 발생시 진화차량 진입로로 활용하는 등 산림자원 활용과 보호에 앞장서왔다.

또 도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평동산단로에 가로 숲을 만들고 무진로 소촌공단 진입부 및 신가동 주공아파트 사거리에도 '조각 숲'을 조성했다.

전갑길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전체 산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가 광주의 허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산림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사랑의 나눔 쌀' 전달

광산 평동농협

광산구 평동농협(조합방 김영섭)이 지난 21일 농협 회의실에서 '사랑의 나눔 쌀' 행사를 개최했다.

평동농협은 연말을 맞아 관내 소년소녀 가장과 홀로사는 노인, 영세 주민 등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박형률(60)씨 등 200명에게 각각 20㎏ 쌀 1포대씩이 전달됐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보성 수화통역 센터' 서편제 전수관 개관

보성지역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도울 '보성군 수화통역센터'가 지난 21일 서편제 소리전수관 내에 문을 열었다.

보성군 수화통역센터는 지역내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는 물론 법률·민원 등 각종 생활상담도 해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실도 운영한다.

내년에는 센터 내에 농아인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완도 수산고생 250명 日서 체험학습

나가사키 수산시험장 견학

완도 수산고등학교(교장 선병오) 2·3학년 학생 250명이 최근 4박5일간 해양수산부의 특별지원을 받아 일본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자매결연학교인 나가사키 학양고(구 나가사키 수산고)를 방문, 교류활동을 전개했으며 일본 최대 규모의 나가사키 종합 수산시험장 등 선진화된 일본 수산·해양 시설을 견학했다.

또 일본속의 작은 네덜란드라고 불리는 '하우스텐보스(숲속의 집), 활화산인 아소산, 일본 3대 성의 하나인 구마모토 성을 둘러봤다.

이번 해양수산부 특별지원금은 당초 수산·해양 교과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됐으나, 학교장과 교사들의 전향적인 발상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국외 현장체험비로 사용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소망이 꽃 피는 벽화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진입도로 입구에 타일 벽화인 '소망이 꽃피는 언덕'이 조성됐다. 타일 벽화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장흥지역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참여해 길이 70m, 높이 2m 벽면에 타일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부착해 완성됐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